중앙교섭속보

2026-13호

발행일 2026년 8월 19일(수) | 발행인 박상만 | 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축소교섭 벌였으나 입장차 확인

사용자협의회 “정년연장 관련 회원사 의견 수렴 시간 필요”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13차 중앙교섭에서 축소교섭을 벌였으나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3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열며 "제조업 산별을 대표하는 교섭인 만큼 이번 축소교섭에서 갈등과 차이를 좁히고 의견접근에 이를 수 있는 진전된 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오늘 축소교섭을 통해 주요 쟁점의 이견을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용자 측의 입장과 한계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오늘 교섭이 타결된다면 파업 지침에서 중앙교섭 타결 사업장에 대한 배려나 인센티브가 고려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본교섭 정회 후 곧바로 축소교섭에 돌입해 3시간가량 의견을 나눴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교섭을 마치며 "정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랐는데 아쉽다"라며 "중앙교섭이 축소교섭으로 원만히 합의되길 바란다면 차기 교섭에서는 노조가 희망하는 진전된 안을 사용자 측에서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박근형 회장 마무리 발언에서 "정년에 대해 노조가 생각하는 방향과 사용자 측의 방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회원사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9월 1일 교섭에서는 타결을 이룰 수 있도록 전향적인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오는 9월 1일 서울에서 14차 중앙교섭을 개최할 예정이다.